

2월을 맞을 때면 이 나라 사람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욱 가슴 불태운다.

어찌 그렇지 않았는가. 남들같으면 열백년도 주저앉았을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불타는 애국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고 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그 누구도 감히 견드릴 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워주시고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장군님이시다.

여기에 이런 수자가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 서거이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도 보도건수는 무려 1700여건, 그중에서도 생애의 마지막해인 2011년 현지도도 보도건수는 무려 백수십여건에 달한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일해나가자고 하시며 초강도현지도의 첫걸음을 내짚으신 위대한 장군님 이시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걸인불발의 의지로 현지도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대장정이 있어 오늘날 세상이 부러워하는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수 있었다.

한 나라를 이런 튼튼한 강국의 반석우에 올려세우는 역사적위업은 천년만년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책임지는 위대한 애국가, 절대적 위인만이 실현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속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를 지키고 강성국가를 건설한다는것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리해안의 예지와 비범한 영도력을 지닌 위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류정치사에 전무후무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공화국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시고 모든것이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부강번영할 조국의 레일을 내다보시고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역척같이 다져놓으시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일에서는 언제나 만족을 모르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과 강성국가건설시기 조국과 인민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헌신의 대장정을 수놓아오신 장군님 이시다.

하루를 천날맛잡이로 불같이 사신 그이의 현지도의 길에서 조국땅우에는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강성국가건설의 복소리가 높이 울리고 가는 곳마다에서는 대비약, 대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기술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도하시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을 추동력으로 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 지식경제형강국의 높은 단계로 도약하도록 하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기계제작공업의 CNC화를 실현하는것으

로부터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는 지름길을 선택하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CNC화의 초행길을 걸으신 그뻘을 자주 회억하시면서 당시 자신에게는 얼마간의 돈밖에 없었다고, 사실

그 돈으로 식량을 사올수도 있었지만 인민들이 고생하는것을 보면서 앞을 내다보고 얼마 되지 않는 자금을 나라의 현대화에 돌리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시었다. 몇해전 12월 어느날 한겨울

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새 세기 표본공장으으로 전변된 회천련합기계공장을 찾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가 CNC기술의 패권을 확고히 틀어쥔데 이어 최첨단의 전령에 당당히 들어선것은 선군시대에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시었다.

이렇듯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활성화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세계야금계의 기적이라 일컫는 주체철사변이 일어나고 나프사에 의한 비료생산체계에 종지부를 찍고 주체비료폭포를 안아올수 있었으며 자체의 무진장한 원료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섬유인 비날론솜과 비날론천의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할수 있었다.

공화국은 이제는 결심한다면 지열수와 태양열에네르기리용과 같은 첨단기술도 개발해내고 세계적수준의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파수기지들, 현대적인 양어기지들, 최신설비로 장비된 식료공장들을 도처에 건설해놓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확고한 경제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자신만만한 배짱과 드높은 열의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에 총진군

할수 있게 된데는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려 애국헌신의 대장정을 이어가신 장군님의 불변불류의 로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예로부터 땅과 강을 길들이는 일은 위인만이 할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 나라전체를 세계 으뜸의 경지에 올려세우는 일은 특출한 자질과 령도력을 지닌 출중한 위인만이 할수 있는 거창한 위업이다. 불과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강성국가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회세의 걸출한 위인이시다.

라오스신문 《바테라오》는 김정일령도자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참다운 애국자의 귀감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초인간적인 정력과 희생적인 헌신에 의하여 조선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될수 있었으며 첨단기술로 장비된 강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갖추실수 있게 되었다고 격찬하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이하게 되는 2월의 날과 날이 흐르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그이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그이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은 강성국가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는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2월의 강산에 굽이쳐흐르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그리운 조국산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신것은 사랑하는 조국이였다. 행복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조국땅에서나 조국을 멀리 떠나서나 그이의 심중에는 언제나 조국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주체90(2001)년 여름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로씨야방문도 조국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보내신 나날이였다.

렬차가 옴스크시를 향해 달리고있을 때 그이께서는 다른 일로 귀국하는 한 일군에게 조국으로 떠나는 동무가 부럽다고, 조국을

떠난지 한주일도 못되었는데 수령님이 그림고 조국인민들, 조국산천이 그림다고 하시었다.

그후 로씨야방문을 마치고 조국에 도착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로씨야를 방문하는 전기간 조국과 인민을 한시도 잊어본적이 없다. 다른 나라에 오래동안 가있으니 조국과 인민이 무척 그리웠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잊을수 없었다. 조국의 사랑하는 모든것이 다 그리웠다. ...

새로운 거리풍경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는 인민을 위한 복무를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의 편익과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신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함축되어있다.

언제인가 그이께서 교통편의를 잘 세우는 문제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실 때

였다.

그이께서는 네거리에서 인민들이 많이 리용하는 버스보다도 승용차를 먼저 통과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자신의것이 우선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주체사상

노래 한국을 들으시면서도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레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교결한 삶에 관통되어있는 인생관이었다.

몇해전 5월 어느날 그이께서는 노래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들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 우리 나라를 쌀이 그리운 나라가 아니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의 요구에 맞지 않게 인민대중을 경시하는 규정들을 다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승용차가 아니라 인민들이 리용하는 버스, 전차들을 먼저 통과시키는 새로운 거리풍경에 대한 이야기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에 대하여 감동깊게 전하고있다.

만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노래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들네》에 있는것처럼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원종장담게 더욱 멋있게 변모게 되었다.

자랑이 크고 사연이 깊은 교정의 추억은 끝이 없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치심과 정력적인 보살핌속에 짧은 기간에 대학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진해 장군님의 유훈을 실현했다. 지금 우리 대학의 전체 교육자들은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교육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학생들을 유능한 민족인재로, 능력있는 교원들로 양성하기 위한 교수교양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나라의 역군이 될 학생들의 열의도 같은바 2월의 명절에 다지는 전체 교원, 학생들의 애국충정의 마음이기 도 하다.》

우리를 배운한 교수 리명원선생의 인사말이었다. 창가마다에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차넘치는 2월의 교정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교육중시, 미래중시의 령도에 의해 위대한 장군님의 후대사랑은 오늘날 길이 이어지고있으며 김형직사범대학이 공화국의 사범교육 모체대학으로서의 오랜 력사와 자랑스러운 전통도 빛나고있다는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리 설

《아버지!—》 얼마전 평양의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아이들이 러친 책상 한쪽에서 세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소리가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인가, 아픈데는 없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 아이들이 뛰노는 방에서 세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소리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고 아이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보살펴주시는것이

스스로없이 달려와 품에 안기는 아이들을 꼭 껴안으시고 귀여운 볼도 다독여주시며 원수님께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워주고,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고 하시었다. 품에 안기는

시작부터 또다시 놀라운 전변이 이루어지게 될것이라는 흥분으로 설레이게 하는 새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의 문어귀에 2014년의 휘황한 설게도처럼 펼쳐주신 신년사를 만들어 온 나라가 약동하는 온

인민들의 자신심에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 령도자의 목표이고 리상이자 인민의 목표이고 리상이며 령도자의 결심이고 실천이자 인민의 맹세이고 실천이라는 혼연일체의 기상이 맥박치고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위대한 전환기, 눈부신 번영기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력사의 기적은 민족의 천만년 앞날을 내다보는 비범한 예지와 만능의 실력, 강철의 의지를 지닌 걸출한 령도자만이 안아올수 있다.

지난해에 《마식령속도》라는 새로운 시대속도가 창조되어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경탄할만 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게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인가, 아픈데는 없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 아이들이 뛰노는 방에서 세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소리가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인가, 아픈데는 없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 아이들이 뛰노는 방에서 세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소리가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인가, 아픈데는 없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 아이들이 뛰노는 방에서 세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소리가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인가, 아픈데는 없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 아이들이 뛰노는 방에서 세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소리가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인가, 아픈데는 없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 아이들이 뛰노는 방에서 세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소리가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인가, 아픈데는 없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 아이들이 뛰노는 방에서 세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소리가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인가, 아픈데는 없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 아이들이 뛰노는 방에서 세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소리가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인가, 아픈데는 없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 아이들이 뛰노는 방에서 세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소리가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인가, 아픈데는 없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 아이들이 뛰노는 방에서 세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소리가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인가, 아픈데는 없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 아이들이 뛰노는 방에서 세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소리가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인가, 아픈데는 없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 아이들이 뛰노는 방에서 세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소리가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인가, 아픈데는 없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 아이들이 뛰노는 방에서 세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소리가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인가, 아픈데는 없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 아이들이 뛰노는 방에서 세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소리가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인가, 아픈데는 없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 아이들이 뛰노는 방에서 세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소리가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인가, 아픈데는 없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 아이들이 뛰노는 방에서 세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부여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소리가

그러나 공화국의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자라고있는것이다.

올해 정초 새로 건설된 수산물냉동시설을 돌아보실 때에도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대

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신 원수님이시었다.

친자식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와도 같이 고기와 물고기는 물론 영양가높은 꽃갈매 먹여야겠다시며 원아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돌보시는 각근한 사랑에 원아들은 그토록 불러보고싶었던 아버지란

원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의지와 정력적인 헌전지도의 결실이다.

지난해 초여름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말도듣고 부여한다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찾으신 원수님께서는 남들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할수 없는 방대한 공사를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해낸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력사적인 호소문을 발표하시어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이는 온 나라에 타오르게 하시었다.

생산만부하의 동음 올리는 공장에 가시여서는 이 공장에서 올리는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소리를 들으니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건설의 대전성기를 더욱 힘있게 펼쳐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하시며 먼지바람이 날리는 날에나 폭우가 쏟아지는 험한 날도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날 그날을 그리시며 병원, 유원지건설장을 현지도하신 원수님이시다.

세계적인 물놀이장과 승마구락부, 병원들에서 웃음

부름을 터치며 그이품에 너도나도 안겨들었던것이다.

《아버지!—》 목매어 부름머 아이들이 안기고 햇빛처럼 따스한 미소를 환하게 지으시며 꽃망울같은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원수님의 모습.

그이께서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신 날은 아이들에게 아버지라 오신날, 친아버지 사랑을 주시며 그들의 밝은 미래를 꽃피워주신 축복의 날이다.

달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아름다운 화원인 공화국에는 부모없는 아이들이란 없다. 그들모두의 아버지, 온 나라의 아버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본사기자 리경월

발 날리면서 자신들의 행복한 생활이 그이의 이런 헌신, 이런 로고속에 마련된 것이라는것을 깨부로 절감하며 그이의 인민사랑에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조선의 활기 넘치는 새해의 현실을 로씨야신문《쁘르리오트》는 다음과 같은 시로 묘사하였다.

《조선의 강성대국은 확고한 헌신

평양의 하늘에 천리마가 날아오르고

지구우로 《광명성》호가 돌고있는것처럼!

거세찬 진군길의 앞길에 혁명의 아들, 백절불굴의 인민의 령도자

은 나라가 그처럼 사랑하는 김정은 령도자께서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인민에게는 실현하지 못할 리성이란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발걸음따라 공화국의 인민은 올해에도 비약의 세월을 펼쳐며 행복한 미래로 출달을 옮겨나갈것이다.

김인숙

